

냉전초 동남아시아 밀무역 구조와 화상(華商)의 역할*

- 아편, 공산품, 천연자원의 밀무역을 중심으로 -

김종호**

국문초록

1950년대 동남아시아는 초지역적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던 제국의 해체와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공존하는 과도기의 시기였다. 본 연구는 ‘밀무역’을 매개로 이념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물류 이동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활발히 이익을 획득한 화상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아편, 전기·전자제품, 천연자원(고무, 석유) 등 다양한 물품을 역내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소련 등으로 밀수출하고 있던 이들의 활동을 당시의 시대적 맥락 아래 추적한다. 화상들은 방콕, 사이공,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역내외 아편 유통에서 주요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아편의 주요 수입처였던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으로 향하는 밀수품은 미국과 영국의 견제 아래 경제 근대화를 위한 천연자원, 공산품 등으로 비중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전환의 과정에도 싱가포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59).

** 서강대 동아연구소 및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조교수. kimjongho@sogang.ac.kr. 부족한 글에 대해 성심껏 평가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수정사항들을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후속 연구로 이어가겠다는 양해의 말씀도 함께 드리는 바이다.

르에 거점을 둔 화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화상들의 활동은 냉전초라는 혼란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들이 누구나 탐낼만한 독보적인 초국적 네트워크 영역을 확립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제어: 냉전, 화상, 동남아시아 밀수, 밀무역, 남중국해 밀무역

I. 서론

1950년대는 동남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동남아시아 각 지역이 차례로 식민의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과 건국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동남아시아에는 독립된 국가의 성립과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줄 내셔널리즘의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초지역적 영역을 설정해 놓고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던 제국(Empire)이 해체되는 과정과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배타적 경계설정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공존하는 과도기의 시기가 바로 1950년대 동남아시아다.¹⁾ 거기에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냉전의 영향이 불어닥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제국의 잔재와 국민국가의

1) 본 논문의 전제는 동남아시아 화상들에게 제국의 경계와 국민국가의 경계는 다르게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 식민 영역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이 기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영역이 갈라지면서 형성되었다. 식민시기 화상들은 이러한 제국의 영역뿐 아니라, 제국간, 혹은 제국과 중국대륙(특히 개항장의 외국인 조차지역) 사이의 상행위에 있어서도 다중국적을 활용하여 경계를 넘나드는 데에 능숙하였다. 그 과정에서 밀무역 역시 제국과 중국 정치 권력의 범망을 피해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1960-70년대 동남아시아에 들어선 국민국가의 성립으로 어려워지게 되는데, 본문은 그 이전 동남아시아에 국민국가가 성립해가는 과정인 1946년부터 1950년대까지를 과도기로 설정하여 제국의 영역에서 국민국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던 시기 화상들의 활동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도기의 시기를 냉전 초기로 설정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태동, 새로운 형태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소련의 개입, 지역 맹주를 자처하던 중국의 간섭 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혼돈의 영역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제국과 국민국가 사이에서 다양한 계층의 동남아시아인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생존을 위해 적응 혹은 갈등하기 시작한다. 본 연구는 그 생존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밀무역’을 매개로 이념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물류 이동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²⁾ 아울러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화상(華商)들의 활동을 추적함으로써 제국이라는 형태의 정치권력 아래 적응하던 화상들이 세계를 돌로 나눈 냉전의 확산과 제국에서 국민국가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특히 아편, 전기·전자제품, 무기, 천연자원(고무, 석유) 등 다양한 물품을 역내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소련 등으로 밀수출하고 있던 이들의 활동을 당시의 시대적 맥락 아래 추적해 볼 것이다.

동남아시아 역내와 역외의 해로 및 육로 밀무역은 역사적으로 그리 드문 현상은 아니었다. 시대별로 상품과 빈번함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지역의 상인들과 거주민들은 끊임없이 때로는 상품을, 때로는 사람을 국가의 통제 범위와 경계를 넘나들며 사고팔았다. 그리고 이 밀무역을 주도한 것은 중국인들이었다. 중국 명(明)·청(淸) 시기 빈번한 해금(海禁)과 교역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유럽인들의 수요를 비밀리에 맞춰준 것도, 동남아시아 역내에서 동과 서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주도한 것도 모두 화상들이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을 식민화

2)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정치권력이 정해 놓은 경계선을 허가 없이 넘나들면서 행해지는 상행위를 영어권 학계에서는 주로 ‘스머글링(smuggling)’이라고 하고, ‘불법적 상행위(illicit trade/commerce)’라고 칭하기도 한다. 한국어로는 ‘밀무역’과 ‘밀수’가 혼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본문에서는 사전적 정의에 따라 밀수출과 밀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밀무역’으로 통일하되, 문맥에 맞게 ‘밀수출’, ‘밀수입’, ‘밀수품’ 역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고 중국 동남 연해 지역의 개항도시에 조계지를 설치하는 등 ‘제국’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밀무역이 다시 정의되는데, 유럽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전통 국가들 사이의 희미한 경계인식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기존에는 정당한 교역이던 것이 제국적 질서에 의해 배타적 경제가 그어지면서 밀무역으로 배척되기 시작하였다. 즉, 밀무역은 상대적 개념으로 시대와 맥락에 따라 일상적 무역이 불법적 상행위가 되기도, 밀무역이 다시 공식 교역이 되기도 하였다.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경우 냉전기가 되면 이를 정의하는 기준이 국민국가 기반의 배타적 경계인식이었고, 아울러 냉전이라는 특성상 이념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여 복잡한 구도를 형성한다. 그러나 냉전 초기 동남아의 중국계 상인들은 여전히 제국과 국민국가 사이의 시대적 전환 속에서 경계인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익을 위해 이념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그 구조와 흐름을 초보적이거나 추적해 보고자 한다.

기존 화상의 아편 무역 관련 연구는 주로 제국시기 징세 청부업자(Tax-Farmer)로서 부를 축적하거나 소비계층으로서의 모습에 주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Derks 2012; Harumi 2006; Kim 2018; 2020; Tagliacozzo 2002; 2005; 2022; Trocki 2002; 2012). 냉전초 제국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연구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동시에 아편 이외 상품의 밀무역에 대한 연구 역시 19세기나 20세기 초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Tagliacozzo 2002; 2005; Kim 2018; 2020). 물론 1945년에서 1949년까지 인도네시아 혁명기와 싱가포르의 관계를 다루면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화상들의 밀무역에 주목한 용문청(Yong 2003)의 연구와 냉전초 해양부 동남아시아 해역공간의 밀무역에 대해 다룬 여운경(여운경 2014b)의 연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의 동남아시아 밀무역 양상은 큰 주목을 받아 온 주제가 아니었다.

냉전 초기인 1940년대 후반, 1950년대 동남아시아 역내와 역외의 밀무역 상황, 그리고 화상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자료의 부족 때문인 측면이 크다. 다만 본 연구는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s)’를 우려하여 동남아시아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과 공산화된 중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상들의 동향에 주목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료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내용을 모아 아편, 공산품, 무기, 천연재료 등의 밀무역 양상과 화상의 역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³⁾

II. 근대 동남아시아 밀무역 양상과 화상의 역할

전통시기 동남아시아의 정치체들 사이에는 경계에 대한 관념이 동북아시아보다 상대적으로 희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경계 자체가 매우 성기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오히려 영토에 기반한 경계보다는 인구에 기반한 군주 및 지도자의 권위, 권력이 보여주는 ‘영향력’이 더욱 중요한 ‘경계’였다고도 할 수 있었다(Reid 1993; Jones 2007). 경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하다는 의미는 교역에 있어서도 소위 ‘밀무역’에 대한 개념이 그리 주목받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해양부 동남아시아를 자유롭게 오가는 해상민족인, 오랑라웃(Orang Laut)이나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

3)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개한 문서의 특징은 관련 문건들이 냉전적 프레임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계적으로 옮겨적은 부분과 보고자의 의견이 추가된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 대중국/대소련 해상봉쇄를 위해 반드시 동태를 파악해야 했던 동남아시아 화교화인 그룹에 대해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현지 화교화인들의 각종 신문, 잡지, 인터뷰 내용뿐 아니라 직접 화교화인들을 ‘휴민트’로 고용하여 수집한 정보들을 활용한 자료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계를 넘나들며 지금까지도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는 고산지대의 소수민족들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기 동남아시아에서 ‘밀무역’이라는 개념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넘어선 교역행위라는 측면에서 밀무역은 주요 교역 방법 가운데 하나이자 일상적인 교환행위였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게 된 계기는 바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열강들 사이에 배타적 경계가 그어지면서부터이다. 이 배타적 경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대 열강으로부터 식민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내부 피식민인들을 경계 내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 이유로 밀무역이라는 현상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 즉,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전통시대에는 밀무역이라고 하는 활동에 대한 정의나 통제 시도 자체에 의미가 없었는데, 경계를 명확히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밀무역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적 현상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근대 시기 동남아시아는 바로 이 두 가지 관념이 병존하면서 밀무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에릭 파글리아코조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령 말라야(British Malaya), 싱가포르(Singapore),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Dutch Indies), 보르네오섬 사이에 영국과 네덜란드, 두 제국간 식민지 경계가 그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무역활동을 해 오던 이들 가운데 두 제국의 제도권 밖에서 교역활동을 이어가던 이들이 밀무역 업자로 단속되기 시작하였다(Tagliacozzo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시기 동남아시아의 경계지역에서 밀무역은 매우 성행하였다.

그 주요 밀무역 루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기와 천연자원의 거래였다(Tagliacozzo 2005: 260). 사실 이 교역은 근본적으로 밀무역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말레이반도 주변 섬과 인도네시아 군도

에는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하던 세력이 잔존해 있었다. 그에 따라 식민정부에 대해 민족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기반해 저항하고 있던 수마트라(Sumatra) 북부 아체(Aceh) 지역, 술루(Sulu) 지역, 보르네오섬 정글의 무장세력을 중심으로 현지의 풍부한 고무, 주석, 석유, 기름야자 등의 원재료가 무기 산업의 대시장이었던 싱가포르의 무기 암거래 루트를 통해 거래되는 형식이 이 시기에 걸쳐 성행하였다.

사실 유럽 제국들이 동남아시아지역을 본격적으로 식민화하기 전, 17세기-18세기 유럽진출 초기만 해도 그들이 쓰던 총이나 대포와 같은 무기들이 섬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거래되었었고, 이 무기의 확산이 그대로 현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였다(Tarling 1999).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의 상인들 역시 이러한 무기들을 활용하여 무역거래를 활발히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19세기부터 식민지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무장투쟁을 진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무기의 거래는 금지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무기 거래가 밀무역이 되었다.

같은 시기 가장 빈번하게 밀수출되던 상품은 바로 아편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아편은 중독물질, 혹은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마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편은 화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교환, 저장, 인센티브 제공 등의 수단으로 쓰였고, 때로는 현금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편이 대량으로 재배되어 확산되는 19세기, 20세기 초 동남아시아의 지배층(식민권력, 현지 엘리트, 상인 등)은 일반적으로 아편 밀무역과 중독의 확산을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금, 자본 축적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사실 19세기 이전 동남아시아에서 아편은 그리 중요한 상품이 아니었다. 버마(Burma) 북부 지역의 산족(Shan)이나 카친(Kachin)족이 부분적으로 재배한 의약품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아편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체제는 19세기 이후 유럽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 현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련되었다(Derks 2012: 421).

19세기 시암(Siam) 왕국이나 버마, 베트남의 왕국들은 아편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몰래 유통하여 이익을 획득한 것은 바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서구 제국들이었다(Derks 2012: 421-422). 19세기 영국의 버마 점령과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점령(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과정에서 서구 제국은 아편을 공식화하고 대량재배를 강제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과도해져 결국에는 아편을 통한 세입 없이는 식민지 경영이 어려울 정도였다. 예를 들어 1819년에서 1910년까지 영국령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의 경우 전체 세수 가운데 60%가 아편 거래로부터의 간접세로 발생하였고, 1861년에서 1899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경우 50%, 네덜란드령 자바는 1886년에서 1895년까지 35%에 이르렀다. 영국령 버마는 상대적으로 낮아 1826년에서 1894년까지 10% 정도에 달했다(Kim 2020: 35).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아편은 식민지 경제와 사회 조직, 도시 인프라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정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제국의 통제를 벗어나 아편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공식적 거래보다 비공식적 거래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Tagliacozzo 2005: 188).

경계를 지으면서 성행하게 된 근대시기 동남아시아의 밀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가장 큰 이익을 본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상 그룹이었다. 네덜란드의 식민통치에 극렬하게 저항한 아체인들에게 라이플(rifle)과 부속품, 기타 무기 제품을 제공하면서 후추, 고무 등의 산품을 받는 밀무역을 진행한 이들이 대부분 중국계 상인들이었다. 그리고 화상들은 진, 위스키와 같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제국산 술을 각 섬 지역민들에게 판매하는 밀무역을 하기도 했

다. 서구의 제국적 질서에 협력하면서 초지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화상의 상업적 인프라는 사실 밀무역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근대 제국주의 시기 동남아시아에서 화상들은 제국으로부터 각종 산품을 대리 착취할 권한을 부여받아 징세청부업자(Revenue/Tax-Farmer)로 치부(致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가장 큰 수입은 아편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네덜란드령 자바에서 아편 취급의 권한을 내걸고 진행되는 경매는 “왕좌 다툼(Battle of Kings)”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푸젠 출신(福建 Hokkien) 화교 거부들의 각축장이었다. 비슷한 상황이 영국령 버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화상 거부들은 극렬해진 경쟁으로 인해 개인 경호 조직으로 마약비밀결사(tirad)의 조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할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했다(Kim 2020: 33-34).

이러한 아편팜(Opium Farm, 아편 유통권 경매)에의 관여는 동남아시아 식민지 경제에 화상 기업가(entrepreneur), 혹은 자본가(capitalists)의 출현을 앞당겼다(Trocki 2002; 2009; 2011). 기본적으로 현금장사인 특성상 일상적 아편의 흡연 습관은 거대한 현금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고, 주요 거대도시에서 화상들이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인 자본을 바탕으로 그들은 부동산과 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었고, 근대적 기업가로 거듭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상당수는 공식적 아편 취급뿐 아니라 밀무역을 통해 발생하였다.

다만 이렇게 도입되고, 퍼트려지는 아편의 주요 소비자는 대부분 중국계 이주민 노동자(coolie)들이었다. 특히, 노동의 강도가 매우 강한 도시의 인력거꾼, 건설 및 부둣가의 노동자, 대농장의 농노, 광산의 광부 등이 주요 소비계층이었다. 1848년 싱가포르의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노동자 가운데 85%가 아편을 소비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그 외에 같은 처지의 인도인이나 현지인(버마, 태국인, 자바인 등)들도 소비하고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중국인이 다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Kim 2020: 33-34).

제국주의 시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특히 인구가 몰려있던 사이공(Saigon, 현 호찌민시) 중심 남부 코친차이나(Cochinchina)와 하노이(Hanoi) 중심 북부 톤킨(Tonkin) 지역 아편 소비자 역시 거의 대부분 중국계였다. 현지인과 비교해 봐도 아편 소비량에서 이미 압도적이었다. 코친차이나의 경우 1907년 기준, 5만 킬로그램이 약 9만 명에 의해 소비되었는데, 중국계 이주민의 경우 평균 한 해 1.5 킬로그램을 소비하였다. 반면 베트남인 흡연자의 경우 300 그램에 불과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부 안남(Annam) 지역 역시 대부분 중국계 이주민들이 아편을 소비하였는데, 각각 연간 1.4 킬로그램, 1.7 킬로그램을 소비했다(Derks 2012: 433-434). 사실 절대적 흡연자의 수는 인구 구조상 중국인(지역에 따라 전체 인구 가운데 1% 미만~5%)이 적었지만, 소비량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아편은 생산을 제외한 유통과 판매, 소비가 모두 다양한 계층의 중국계 이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지인들 간의 교역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무기 밀무역과는 다른 양상이었다.⁴⁾ 이러한 상황은 서구 제국주의 시대가 2차대전과 일본의 침략을 계기로 붕괴하면서, 그리고 냉전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미국과 소련, 중국이 개입하고, 동남아시아 각 국가가 공동체별로 배타적 경계를 긋고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냉전 초기의 밀무역은 제국주의와

4) 이러한 양상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진행된 일련의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시기도 계속 이어지는 양상인데, 당시 화상들은 때로는 통치 권력인 일본에 협력하면서 교역을 이어갔고, 때로는 일본의 감시망을 피하면서 밀무역을 진행하기도 했다(김종호 2018; Kim 2018; Huang 2006; Kinzley 2022).

국민국가 사이에서 과도기적 특징을 드러낸다. 여기에 국가간 경계뿐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경계가 밀무역을 판별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냉전초기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징은 두 이념 기반 진영이 혼재하고, 독립을 한 지역(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과 독립을 위한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베트남), 여전히 제국적 질서 속에서 독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지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식민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근대적 국가 체제를 마련해 가고 있는 지역(태국)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밀무역과 교역의 구분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점에 따라 교역이 되기도, 밀무역이 되기도 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밀무역을 왕성하게 만들었고, 경계의 화상들이 활동할 공간이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Ⅲ. 냉전초 아편 밀무역의 구조와 화상의 역할

동남아시아의 아편 밀무역은 그 생산지로부터 시작한다. 제국주의 시기부터 동남아시아의 아편 생산지는 영국령 버마 북부 지역과 중국 윈난(雲南)성의 경계가 이어지는 고산지대, 태국 북부 고산지대, 라오스 북부 지역이었다. 지금까지도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세계적 아편 생산지다. 1948년 CIA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생산되는 이 아편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유통되는데, 첫 번째는 역내에서 소비되는 것,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건너가 역외로 빠지는 경우다(CIA-RDP82-00457R002100350002-2 1948). 전자의 경우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버마 등지에서 소비되었고, 주요 집산지는 방콕, 사이공, 하노이 등이었다. 그리고 싱

가포르로 밀수입된 아편 가운데 상당량은 인도네시아와 보르네오섬으로 넘어가는 수량이었다. 후자인 역외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49)을 전후하여 상황이 달라지는데, 성립 이전에는 제국주의 시기처럼 싱가포르나 홍콩, 마카오 등을 거쳐 중국 대륙으로 유입되는 것이 대다수였다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강력한 반아편 정책으로 인해 아편 밀수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일본이나 남아시아, 아메리카 등으로 루트에 변화가 발생했지만, 상당량이 동남아시아 지역내에서 소비되었다.

1. 버마-태국 루트

동남아시아의 아편 밀무역 루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버마산 아편의 태국 이동, 버마산 및 라오스산 아편의 베트남, 캄보디아 이동, 싱가포르 중심 역내외 아편 밀무역이다. 첫 번째 버마-태국 루트를 살펴보면, 버마와 윈난성의 고원지대에서 생산된 아편은 우선 그대로 태국의 치앙라이(Chiang Rai), 치앙마이(Chiang Mai), 무앙 팡(Muang Fang) 등의 태국 북부지역으로 이동된다. 1955년을 예로 들어보겠다(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⁵⁾ ① 버마 고원지대에서 생산된 아편 가운데 밀수출용으로 90톤이 확보되면, 주요 생산부족인 산족의 거주구역(Shan State)에서 ② 버마의 켝퉁(Kengtung)으로 이동되었고, ③ 태국과 버마의 국경지대를 거쳐 ④ 태국 치앙마이로 온다. 그 이후에는 남부의 ⑤ 방콕(Bangkok)으로 모여드는 루트였다. 이 밀무역 루트는 중간 브로커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주는 산업이었는데, ①에서 1,350,000달러였던 것이, ② 켝퉁에서 3,970,000달러, ③ 국경지대 5,310,000달러, ④ 치앙마

5) <부록 1>의 지도 참조.

이로 오면 6,840,000 달러, 최종적으로 ⑤ 방콕에 이르면 9,540,000 달러로 치솟았다.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9배에 달하는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 차익이 중간 과정에서 이를 다루는 브로커들에게 현금성 수익이 된다.

CIA는 이렇게 태국으로 밀수입된 아편의 대부분이 30여 명의 중국계 아편 딜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 이 가운데 몇몇은 원래 말레이 지역의 마약상이었는데, 1954년 추방되었다가 태국에서 이전 직종을 그대로 이은 케이스다. 태국으로 진입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최초 버마에서 사들인 생아편을 정제하는 장소가 태국 북부 지역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제소에서 생아편이 헤로인(Heroin)과 모르핀(Morphin)이라는 정제된 ‘상품’으로 방콕에 유입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가격이 뛰었고, 그런 이유로 아편 거래는 생산자보다는 중간 브로커, 딜러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업종이었다. 그리고 태국에서 이 아편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되는 수단은 주로 금이었다고 한다(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

버마에서 방콕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편에는 중국 윈난성에서 생산된 아편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수량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CIA 보고에 따르면 윈난성 아편을 통해 중국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5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 상술한 것처럼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 강력한 반아편, 반마약 정책을 펴고 있었고, 윈난 고원지대의 소수민족들이 아편을 최소한으로 생산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최후로 남은 아편 생산지였던 윈난 지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는 태국이나 버마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내륙부에서 생산된 아편 역시 중국으로 건너간 정황은

1950년대 중반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CIA- RDP79T00935A 000400150001-4 1956). 제국주의 시기까지만 해도 최대의 역외 아편 밀무역 루트였던 중국 시장이 막히게 된 것이다.⁶⁾

2. 베트남 루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역 아편 밀무역은 기존 제국주의 세력인 프랑스의 관점과 이에 저항하고 있던 북베트남의 호찌민(Ho Chi Minh) 정권의 관점이 얽혀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독점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사적인 유통을 금지했던 프랑스 식민정부와는 달리, 호찌민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두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매겨 수익을 얻는 것은 프랑스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 호찌민의 아편 유통에 대한 태도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베트남인의 아편 소비는 금지한 반면, 중국인은 흡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CIA-RDP82-00457R002100350002-2 1948). 이는 공산주의자이지만 낌족(Kinh, 비엠틈) 중심의 민족주의자였던 호찌민이 원래 소량만 흡연하던 ‘국민’들의 아편 흡연은 금지시킨 반면, 이민자 그룹으로 주요 아편 소비계층이었던 중국인의 흡연은 그대로 둠으로써 아편 유통을 통한 수입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⁷⁾

수출을 금지했던 프랑스 식민정부와는 달리 호찌민 정권은 외환의 확보를 위해 수출을 허가해 주었다. 이는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남부와의 경쟁에 골몰해 있던 베트남 내부의 상황에 따른 차이인 것

6) 중국으로 향하는 아편 유통로가 완벽하게 막혀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CIA 보고서의 내용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시 중국 정부가 아편 수입을 엄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흐름이 대량 축소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7) 호찌민이 표방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최근의 연구들은 상당부분 그를 베트남 민족주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산주의 사상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Phan Hong Tung 2012; Ang Cheng Guan. 2018).

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아편의 사적인 유통과 수출은 프랑스 정권하에서는 밀무역이 되고, 호찌민 정권하에서는 정당한 거래가 되는 상황으로 밀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변적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지역 아편 유통의 경우에도 역시나 태국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신디케이트’를 조직한 중국계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에는 중국에도 거점을 두고 아편 밀무역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이 유통망은 아편뿐 아니라 금과 무기와 같은 물품도 포함하고 있었다.

베트남 지역의 경우 북부와 남부지역에 각각 아편 밀무역 루트가 존재했다.⁸⁾ 북부 루트에는 옌바이(Yen Bay)와 호아빈(Hoa Binh)이 있었고, 옌바이의 경우 주로 윈난이나 태국 북부의 아편이, 호아빈의 경우 주로 라오스산 아편이 유입되는 통로였다(CIA-RDP82-00457 R002100350002-2 1948). 옌바이 루트를 통해서도 주로 중국 국경으로 아편이 퍼졌는데, 까오방(Cao Bang), 랑선(Lang Son) 등을 거쳐 광시(廣西), 광둥(廣東)으로 유입되었다. 유통의 수단은 매우 다양했다. 주로 트럭, 짐마차(Wagong), 가축, 인력 등이었고, 밀무역 업자들은 주로 20-30여 명이 무리를 지어 다녔다고 한다. 두 경쟁 무리가 만나게 될 경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베트남의 중심도시인 하노이, 하이퐁 등으로 유입되어 역내에서 소비되는 아편의 경우 옌바이와 호아빈 모두로부터 공급되었다. 그리고 대량의 아편이 베트남 북부 통킹만을 통해 해로로 홍콩과 중국으로 공급되기도 했다. 베트남 북부 통킹으로부터 해로를 통한 밀무역은 주로 타인호아(Thanh Hoa) 지역에서 정크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 다수의 정크선이 아편을 싣고 남중국해를 건너 하이난이나 마카오, 홍콩 등으로 공급되었다.⁹⁾

8) <부록 2>의 지도 참조.

옌바이에서 중국 국경으로의 육로 이동은 주로 중국계 토비(To-Fi 土匪, 일종의 도적집단)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공산주의 세력인 비엠킨(Viet Minh)의 경우 이들 중국계 토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득을 얻으려 하였고, 심지어 베트남 정부는 이들에게 아편 밀무역을 허가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계 토비집단과 현지 화상들의 연계 역시 추측할 수 있다. 즉, 아편의 유통과 공급은 주로 화상을 중심으로 중국계 농민,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술한 것처럼 대부분의 아편이 중국계 이주민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아편의 유통과 소비가 모두 중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남부 통로의 경우 북부보다 더욱 중요한 밀무역 루트였는데, 왜냐하면 프랑스가 다스리던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남부 인도차이나 지역에 중국인들이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중국으로의 밀 수출이 많았던 북부와는 달리 역내에서의 소비가 많았고, 수출이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 루트의 아편은 주로 라오스 산 아편이었고, 메콩강을 따라 수로를 이용할 경우 삼판(Sampan)이라 불리던 판자선, 육로로 이동할 경우 트럭, 짐마차, 인력 등이 이용되었다. 대부분의 아편이 사이공으로 이동되었고, 일부는 메콩강의 흐름을 따라 방콕, 캄보디아 등으로 이동했다. 한편, 사이공으로 넘어간 아편 가운데 일부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1955년 기준 인도차이나 지역 아편 밀무역량은 남베트남 30톤, 북베트남 45톤, 라오스 8톤, 캄보디아 15톤, 전체 98톤에 달했다(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 버마에서 태국으로 흘러 들어

9) 아편의 중국 유입에 대한 CIA의 기록은 주로 국공내전이 진행중이던 1948년의 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인 1950년대 보고에는 중국으로의 유입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는 양과 비슷했고, 종합하면 인도차이나 대륙 전체 유통량만 190 톤에 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CIA 기록에 나오는 남베트남 경찰 당국에 따르면, 당시 북베트남과 연계하여 남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공산주의 조직들의 주요 자금원이 바로 이 라오스에서 사이공으로 유입되는 아편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었다고 한다. 상당수의 사이공행 아편이 하이퐁(Haiphong)이나 북베트남의 다른 항구를 통해 들어온 것이었다. 프랑스와 미국의 사주를 받고 있던 남베트남 정권에서 당시 이 아편 유통을 철저히 금지하려 한 것 역시 이 아편이 공산주의 등 여러 반정부 세력에 자금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남베트남으로 건너오는 아편 역시 대부분 중국계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아편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이동하고 있던 것은 이 아편이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식민정부는 사실 아편을 중국인들이 일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나 세수를 위한 매개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2차 대전 이후 북부에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주의 세력이 등장하고, 프랑스의 장악력이 약해져 가면서 아편 밀무역은 오히려 활황을 띠게 된다. 주요 유통로를 담당하던 중국계 이주민들의 경우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해지면서 라오스와 윈난, 태국으로부터 공급되던 아편을 베트남 북·남부지역, 태국, 중국, 말레이 지역 등 유통이 가능한 지역에는 모두 공급하였다.

2차 대전 이전 제국이라는 ‘제도’가 아편 유통에 대해 제한을 두었다면, 현금화가 가능한 아편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 한 호찌민과 비엠티이라는 정치권의 협조를 받은 중국계 이주민들은 자유롭게 아편 밀무역을 행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아편은 현금과 같은 것이었고, 이 ‘현금’은 유통망이 길어지면 질수록, 즉 생산지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비싸지는 상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할 경우

외환 획득을 가능하게 해 주던 상품이었다. 제국이 해체되고, 새로운 국가가 성립되기 전의 베트남에서 이러한 무주공산의 시장을 마다할 중국 상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3. 싱가포르 루트

국제 밀무역 시장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요한 시장은 바로 싱가포르였다. 1955년 전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싱가포르와 말레이반도의 아편 밀무역 규모는 대략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 아편 중독자만 11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심지어 이 두 지역은 아편을 생산하는 지역도 아니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아편이 절대적 수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방콕, 사이공과 함께 동남아시아 아편 밀무역의 중심이었을 것은 분명하다.

[표-1] 1954-55년 싱가포르에서 적발된 생아편의 공급지역별 수량
(단위: 파운드)

지역	1954	1955
이란	1,834(46%)	2,333(47%)
원난	914(23%)	965(19%)
인도	546(13%)	552(11%)
버마	656(16.5%)	547(11%)
알 수 없음	9	498(10%)
전체	3,959	4,895

출처: CIA-RDP79T00935A000400150001-4, 9 Nov 1956, CIA Archives

* 앞서 원난 지역의 아편이 치앙마이를 거쳐 방콕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원난 지역 아편의 경우 직접 싱가포르로 온 것이 아니라 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유입된 것으로 보임. 물론 버마를 거쳐 양곤을 통해 오는 루트도 상정할 수 있지만, 이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상기 표를 보면 동남아시아 역내 아편의 유통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로 유입되는 가장 많은 양의 밀무역 아편은 이란산인 것으로 보인다. 1954년 1,834파운드(약 831킬로그램), 1955년 2,333 파운드(약 1톤)의 수량이 싱가포르로 밀수입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이란산 아편이 수입이 용이하고, 동남아산에 비해 매우 높은 모르핀 함량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⁰⁾ 적발된 수량만 이 정도이고, 적발된 수량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밀수입량만 해도 1955년 기준 이란산 50톤, 전체 100톤에 이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란산 아편은 주로 바레인, 두바이, 아덴 등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통해 싱가포르와 말레이로 유입되었다. 특히 바레인 아랍 상인들의 마약 밀매 조직은 두바이에서 아덴,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등으로 아편을 공급하는 핵심 조직이었다.¹¹⁾ 이란에서 말레이로 건너올 때는 주로 선박을 이용하지만, 상업용 항공편을 활용하여 밀수입하기도 했다.

두 번째 양을 차지하는 원난산 아편의 경우 원난 → 버마 → (태국) → 말레이로 건너오는 루트로 밀수입되었다. 주로 마약의 중심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방콕에서 해로를 통해 말레이로 건너왔다. 또한 태국과 말레이 국경지대를 통한 밀수입도 있었다. 이 경우 태국 남부 핫야이(Hat Yai) 지역이 중심 시장으로 기능하였다. 이 지역에서 국경 지역의 송클라(Songkla), 파타니(Pattani) 지역 등을 거쳐 국경을 넘는 식이다. 그 외에 항공편을 통한 밀수입도 소량이지만 존재했다. 버마산 아편의 경우 대항인 랑군(Rangoon)에서 건너오는 경우가 많

10) 냉전 이전 제국주의 시기 이 이란산 아편의 지위는 원래 인도산 아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전환은 거래를 주도하던 영국이 인도에서의 영향력을 잃은 탓도 있고, 반대로 이란을 비롯한 서아시아에서의 영국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바이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영국령이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반도 역시 영국령으로 자치를 행하고 있었다.

11) 당시 서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심각한 아편 흡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1955년 보고에 따르면 이란에만 백오십만명이 아편에 중독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전 10년 동안 700-1,200톤에 이르는 아편이 생산되었고, 매년 90톤에 달하는 양이 밀수출되었다. (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

았다.

이렇게 건너온 대략 100여 톤의 아편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 대략 3천 6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반 이상이 뇌물로 쓰였다고 한다. 실제 FOB(Free on Board) 기준 가격은 천 4백만 달러였다(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¹²⁾ 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에서 6번째로 큰 수입항목이었다. 싱가포르에 모인 아편은 역내에서 소량 소비되고, 이후에 다시 인도네시아와 영국, 모리셔스 등으로 수출되었다. 제국주의 시기에는 대부분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해 중국대륙으로 흘러 들어갔었지만, 상술한 것처럼 당시 중국의 반아편 기조로 인해 다른 루트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가장 많은 공급원은 태국이었고, 그 뒤를 버마와 인도가 잇고 있다(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 이 두 도시에는 정제소도 있었다. 특히 1955년 마카오에만 네 곳에 정제소가 있었다. 대부분의 아편이 역내에서 소비되던 동남아시아 시장과는 달리,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현지인에 의한 소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편이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1955년 기준 홍콩으로 유입된 아편은 20-30여 톤, 마카오의 경우 5-10여 톤으로 추정된다. 다만 홍콩으로 유입되는 아편의 경우 대부분 태국으로부터 유입되었지만, 당시 태국이 동남아시아 아편의 집산지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버마와 라오스 등에서 생산된 아편이 태국을 지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마카오와 홍콩으로 유입된 전체 아편이 25에서 40여 톤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세계 시장으로 재수출되는 양이 15-30톤에 이

12) 'CIF'와 'FOB'는 국제무역에서 쓰이는 거래조건을 가리킨다. 'CIF'의 경우 매도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루어지는 운임료, 보험료, 기타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하고, 'FOB'는 목적항구에의 도착까지만 비용으로 상정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목적 항구에서의 적재 및 인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형태다. 즉, 본문에서 'CIF'와 'FOB' 사이에 비용상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목적항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르렀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에 걸친 아편 밀무역은 범중화권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화상에 의해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버마, 태국, 라오스 정부가 아편의 주요 생산지를 그대로 둔 것은 이 고산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아편 생산과 판매를 업으로 삼은 지 백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지라 아편 자체에 대한 도덕적 잣대와는 무관하게 이들에게는 생존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 식민정부가 20세기 초중반 전 세계적, 그리고 본국의 반아편, 반마약 정서의 확산에 따라 버마 북부 고산지대 산족들의 구역에서 진행되는 아편 생산을 필요한 양 이상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유지들 및 무역업자들의 반발과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상품작물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Maule 2002). 1950년대 독립한 인도차이나반도의 세 국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실제 1955년 UN에서 버마 정부에 아편 생산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마 정부는 아편의 생산이 고산지대의 소수민족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백여 년간 이어져 온 생업을 대체할 만한 상품작물을 소개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CIA-RDP79T00935A000400150001-4 1956).

아편 밀무역과 유통을 단속하려는 각 지역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있었지만,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동남아시아인들이 아편 흡입에 관대한 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박봉인 현지 공무원들은 매수당하기 쉽다는 점, 그리고 아편이 그들 국가를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접국가로 지나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밀무역을 담당할 만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백 년이 넘는 제국주의 기간동안

형성해 놓은 화상들의 존재가 있었다.

이 시기 아편은 생산자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아편이 과잉공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잉공급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급작스레 사라진 이유가 컸다. 동남아시아산 아편의 수출 기착점은 주로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였다. 그러나 CIA 보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아편을 직접적으로 수출 혹은 수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CIA의 판단은 그 대신 과잉 공급된 아편의 출로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주로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로 대체되었다는 것이었다. 실제 1970년대 CIA의 보고에는 미국 내의 마약 확산과 동남아시아의 관계, 그리고 그사이 화상들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자료도 있다(CIA-RDP74B00415R000100100002-4 1972). 그런 이유로 아편 밀무역을 통한 이익은 주로 중간 브로커와 현지 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몫이었다. 당시 아편을 취급하던 화상들의 경우 제국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막 정립되기 시작한 과도기의 공간에서 경계를 넘나들며 아편 밀무역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 절대적 상위계층인 제국이 해체되고, 내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되면서 역설적이게도 화상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IV. 냉전초 공산품 및 원재료 밀무역의 구조와 화상의 역할

아편과 함께 취급되었지만, 다른 의미에서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던 물품이 바로 공산품과 1차 산품(석유, 휘발유, 고무, 전기전자제품 등)이었다. 냉전초 중국, 동남아시아의 상황은 전후 국민국가를 성립하기 위한 진통을 겪는 시기임과 동시에 자체적인 내셔널리즘을 만들고 이식하는 과정이었다. 그 전제로 경제적 발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이라는 이념전쟁 속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세력 간의 대립에 대비한 자강 역시 필수적이었다. 이는 미국과의 경쟁을 대비하고 있던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동남아시아 각 국가, 중국, 소련 모두 향후 과제는 경제 발전과 근대화였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의 봉쇄전략으로 인해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자국을 근대화하기 쉽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밀무역이 주요 상품의 공급 루트로 떠오르게 되는데, 주요 밀무역 품목은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부품, 원재료 등이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을 밀수출할 능력이 있는 이들이 사실 동남아시아에서는 화상들이 거의 유일했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남중국해를 건너는 초국적 이동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초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화상 집단이 필요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서구 식민지 근대도시(싱가포르, 바타비아, 사이공, 랑군 등)와 홍콩 등에서 경제적, 기술적 근대화를 경험해 본 이들은 화교들이 거의 유일했다. 예를 들어 화교들은 중일전쟁의 주요 전선인 버마-윈난 경계에서 ‘남교기공(南僑機工)’이라는 명칭으로 보급을 위한 트럭의 운전자이자 정비공으로 본국의 승리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중국내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당 정부가 화상들에게 요청하여 모집한 물자와 인력이었다.

밀무역 관련하여 CIA가 1948년의 보고에서 주목한 인물이 립기옥 켝(Lim Giok Keng)이었다. 그가 1948년 바타비아(Batavia 현 자카르타)를 떠나 싱가포르로 향했고, 이는 립안푼(Lim Aun Poon)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다(CIA-RDP82-00457R001900840008-5 1948). 이 간단한 내용을 보고했던 이유는 두 인물 모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화상이자 밀무역 업자였기 때문이다. 립안푼은 싱가포르와 수마트라, 자바섬 사이의 아편 무역을 주도한 인물로 당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정치권, 특히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같은 성씨인 그의 요청을 받고 싱가포르에 온 립기옥킹은 수마트라 파당(Padang) 출생의 푸젠계 화상으로 1889년생이다. 1920년부터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자바와 수마트라에 걸쳐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서구 기업의 무역, 자동차, 석유 등의 사업에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난징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와 수마트라 팔렘방(Palembang) 중화민국 영사의 자문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또한 수마트라 남부 텔록 베통(Telok Betong)항 소속 중국계 상업 모임의 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수마트라와 자바에서는 이름있는 화상이었다.¹³⁾ 주로 기계, 무역, 자동차, 석유 등의 업종에 종사하였다.

그의 밀무역 활동은 당시 공산주의 네트워크를 통하고 있었는데, 그는 주로 남부 수마트라산 후추, 고무, 라탄(Rattan) 및 여러 산품을 싱가포르로 밀수출하였고, 이 밀수품들은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클리친(Clychin)이라는 인물에게 전달되었다. 클리친은 주싱가포르 소비에트 무역 판무관(Soviet Trade Commissioner)으로 이러한 밀수품들을 소련의 배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겼다고 한다. 립기옥킹은 반대로 싱가포르에서 무기, 탄약, 직물, 기계 등을 남부 수마트라 곳곳으로 밀수출하였다. 즉, 싱가포르를 사이에 두고 수마트라의 원재료와 소련의 공산품이 밀거래된 것이다.¹⁴⁾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할 때까지 영국령의 자치공간이었지만, 70-80%의 인구가 중국계였다는 점과 대다수가 노동자들이었다는

13) <https://prabook.com/web/giok-keng.lim/2297245> (검색일자: 2022년 1월 4일)

14) 1948년과 1949년의 기록에 나오는 클리친이라는 소련 판무관의 존재는 매우 흥미롭다. 과연 그와 물건을 거래한 화상들의 활동을 밀무역으로 봐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관련 CIA 자료에는 ‘밀무역(Smuggling)’이라는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식민영토를 재지배한 영국 식민당국이 공산주의에 대해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 문에서는 이들이 이미 이 시기부터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의 거래를 밀무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점으로 인해 본국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하였고, 그 정치적 영향력 역시 적지 않은 편이었다. 그 영향으로 싱가포르는 독립한 이후에도 공산권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 이질적이지는 않았다. 일례로 싱가포르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의 1968년 사진자료에는 당시 한창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북베트남의 무역사절을 맞이하는 싱가포르의 인사들 가운데 주싱가포르 북한무역부의 부대표라는 이름으로 참석한 박수권이 라는 인물의 사진도 있다.¹⁵⁾ 당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무역과 금융의 핵심지역이면서 밀무역의 대시장이 형성된 지역이기도 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던 화상들이 하나씩은 거점을 두고 있는 곳이었던지라 다른 지역의 화상들과도 접촉하기 용이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무역 거점을 마련해 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수마트라는 동아시아 공산권이 원재료를 구하는 주요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 공산주의 세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1949년 기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의 수마트라 거점이 1949년 싱가포르와 플라카의 공산당원들과 교류하였다(CIA-RDP82-00457R002600460007-0 1949).¹⁶⁾ 공산당원들은 현지 농장을 공격하여 빼앗은 고무를 싱가포르 카통(Katong)의 탄카키(Tan Kah Kee)에게 팔았고, 이 작업은 그의 사위인 리콩치엔(Lee Kong Chian)이 담당하였다. 이때에도 이 큰 거래가 소비에트 무역 관무원인 클리친과 이루어졌다. 이 보고에 대해 담당자가 따로 첨언한 내용에 따르면, 리콩치엔은 소련으로 향하는 말라야산 고무 구매와 밀무역을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인물로 이미

15)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19980001704 - 0095, 1968; 19980001704 - 0097, 1968

16) CIA 자료에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PKI의 수마트라 지부로 추정된다.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카키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걸쳐 제국주의 시기부터 고무 사업으로 거부가 된 푸젠계 화교 공동체의 리더격 인물로 당시 현지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고무왕’으로 불렸다. 그의 사위인 리콩치엔 역시 본업은 당시 동남아시아 최대의 화상 자본 은행인 화교은행(華僑銀行, OCBC, Oversea Chinese Banking Corporation)의 행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대표적 싱가포르 화교 기업가였다(김중호 2020; 2018).

탄카키는 보다 본격적으로 고무 사업을 공산권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CIA로부터 소련에 고무를 공급하는 주요 화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던 그는 1950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요청으로 광저우(廣州)로 향하기도 한다(CIA-RDP82-00457R006000040002-3 1950). 사실 탄카키는 중일전쟁 기간 내내 장제스 국민정부의 관료들과 엘리트들의 부정부패, 화교들에 대한 착취에 질려있었고, 그 반대급부로 전후에는 열렬한 친공 인사로 돌아서게 된다(김중호 2020). 사실 CIA가 그에게 주목한 것 역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무를 생산하고 있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고무왕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사업적 수완을 가지고 있던 그는 마오쩌둥의 요청으로 광저우에 천연고무를 가공하기 위한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가공된 고무는 결과적으로 소련과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탄카키의 장남, 탄코켅(Tan Koh Kheng)이 싱가포르에 남아 말레이 및 수마트라산 고무를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홍콩에서 광저우로 옮긴 뒤에 공장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다. 이 당시 탄카키의 부인이 1950년 8월 24일 싱가포르를 떠나 홍콩으로 향했는데, CIA는 공장을 짓는 탄카키에게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탄카키의 고무 조합은 당시 하이난(海南)섬에 수천 그루의 고무나무

를 심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매달 2,500톤의 천연고무가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와 페낭으로 밀수출되고 있었고, 이 지역에서 다시 탄코킹과 리콩치엔에 의해 중국 및 소련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근현대 공산품과 무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재료인 고무를 제외하고 활발히 밀거래된 물품은 바로 석유였다. 당시 싱가포르와 주변 섬에는 셸(Shell)과 같은 현재까지도 업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석유 기업들이 거점을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서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잇는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와 보르네오섬 및 주변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생산되는 석유 자원 때문이었다. 그리고 냉전초 당시 싱가포르의 서구 석유 기업은 현지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브로커로 화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51년 보고에 따르면, 이 커넥션을 활용하여 대량의 석유제품을 획득할 수 있었던 싱가포르 석유회사의 브로커들이 중국으로의 불법적 수송에 종사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CIA-RDP82-00457 R008300690008-1 1951). 이 석유를 실은 배들은 공식적으로는 주변 섬으로 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적 물품들을 미리 안배된 접촉지점에서 공산당에서 보낸 배로 옮기는 방식으로 밀무역이 행해졌다. 싱가포르 동북부 섬들의 셸 석유 기업의 브로커인 토 추 헵(Toh Chwee Hup)은 4갤런(Gallon)의 여러 주석통에 담긴 등유를 외관상으로는 그가 브로커로 활동하는 섬으로 가는 것처럼 꾸민 정크선에 실었다. 그리고 이 정크선들은 소속 섬을 지나 선적품을 미리 안배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산당 소속으로 보이는 배로 옮겼고, 이 배들은 그대로 마카오로 향하는 식이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석유와 휘발유를 가장 많이 선적하는 업자 가운데 하나인 귀 오 노아(Gui Aw Noah) 역시 불법적 선적에 관여하였다. 그는 싱가포르 남서부 카리뭉섬(Karimum 현재 인도네시아령)에서 가장 저명한 화상으로 관련 기업도 소유하고 있으며, 대략 5천

톤의 민간 선박을 전세 내어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또 다른 싱가포르 출신 화상으로는 탄청안(Tan Cheng Ann)이 있다. 그는 여러 기업과 협업하면서 밀무역에 종사하였다. 스탠박(Stan-Vac, Standard Vacuum Oil Company)의 유통업자인 비훗 기업(Bee Huat Company)과 셸 유통업자인 성 훗 힌 기업(Seng Huat Hin company) 소유자인 로우 키 최(Low Kee Choe)도 있었다.

당시 중요한 원재료인 석유의 밀무역, 특히 서구기업의 현지 브로커 및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던 화상들의 밀무역 활동은 국제대항으로서 싱가포르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고, 또한 공산권으로의 밀수출은 냉전이라는 이념전쟁에서는 이적행위였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단속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싱가포르의 브로커 가운데 하나인 탄유찌(Tan Yew Sze)는 당시 섬에서 사용할 용도로 6천 갤런의 휘발유를 주문하였다. 이 선적물품은 그대로 섬을 지나 밀무역에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 경비선에 적발되었다. 당시 말레이 경비당국은 800 해협식민지 달러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CIA-RDP82-00457R008300690008-1 1951). 이러한 강력한 단속 이후 석유 밀무역은 조금 주춤한 양상이었지만, 브로커들은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정기적으로 과잉 주문함으로써 의심을 피하고 있었고, 휘발유 드럼통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식으로 정책이 바뀐 이후로는 대부분의 휘발유를 4갤런의 주석통에 담아 옮기는 식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 귀 오 노아가 소유한 레옹 비(Leong Bee) 증기선(SS)에 실은 석유제품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해당 선박은 태국을 통한 싱가포르와 마카오 간 불법 선적에 관여해 왔다. 이 선박을 켜 총 푸(Quek Chong Poo)가 전세 내었는데, 1951년 켜는 몇몇 동업자와 함께 방콕에만 600 드럼통의 윤활유를 수출할 것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제한을 깨고 마카오로 밀수출하였다. 이들 브로커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석유를 취급하면서 싱가포르 식민정부로부터 받은 권리는 주변 섬이나 방콕으로만 수출하는 것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이 허가를 통해서만 거대 석유 기업이나 그 브로커들이 제한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거대 석유 기업들이 상품의 판매와 유통을 면밀하게 감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을 충분히 우회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밀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였다. 당시 싱가포르는 전체 1,456 드럼통의 윤활유와 100톤의 기름(grease)에 대한 수출 허가를 오직 방콕으로 향하는 선박에게만 부여하였다. 거의 대부분 화상 소유였고, CIA는 상당수의 화상들이 이 석유를 방콕을 지나 마카오로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싱가포르의 단속을 피해 많은 선박들이 포르투갈령 티모르섬(Timor)에서 고무와 코프라(야자유 원료)를 싣고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마카오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CIA-RDP82-00457R008300690008-1 1951).

1952년 싱가포르 세관이 40만 해협식민지 달러에 달하는 46건의 물품을 단속한 기록도 있다(CIA-RDP80-00809A000700210213-7 1952). 중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홍콩으로 향하던 배에서 단속되었다. 물품들은 주로 공산정권 성립 이후 오래된 전쟁으로 폐쇄화된 국내경제를 회복하고,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던 공산품들이었다. 점화 플러그(spark plugs), 자동차 브레이크(automobile breaks), 전기제품(electrical appliances)과 그 외의 다양한 기계부품들을 싣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역내 밀거래와 관련하여 태국 경찰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수백 대의 자동차가 태국으로 밀거래되었다고 한다.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를 실행한 태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많은 자본가들이 자동차 부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수입한 것이다. 또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태국

의 몇몇 자본가들이 자동차 부품을 사기 위해 싱가포르로 가기를 희망했고, 영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 (CIA-RDP80-00809A000700210213-7 1952).

이러한 양상들은 당시 동남아시아 각국이 국민국가로서의 배타적 경제설정을 형성해가고 있던 시기, 여전히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던 자본가들의 경계인식이 충돌한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화상들이 냉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고향인 중국, 이득을 가져다 줄 거래처인 소련과의 거래에 종사하였다. 이는 화상들이 초국적, 초지역적 경계를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시기의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과 여기에 고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서구권의 봉쇄전략으로 막혀있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유롭게 거래했던 본향이자 거대시장이 공식적으로 막혀있다는 사실은 전후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던 원재료 시장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화상들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에 의해 그어진 경계를 넘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역내의 각종 정치적, 군사적 소요와 갈등 역시 화상들에게는 새로운 밀무역의 공간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아편 밀무역과 다른 물품의 밀무역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동남아시아 아편 밀무역의 경우 역내 소비, 혹은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 국제 시장으로의 수출이 주요 루트였다면, 기타 공산품 및 원재료의 경우 냉전의 이념 갈등 속에서 공산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행되던 무역이 주로 밀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아편 밀무역은 중국이 강력한 반아편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대시장을 찾

아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자유주의’ 진영으로의 수출이지만, 아편의 거래가 밀무역으로 취급된 이유는 20세기 초중반부터 꾸준히 국제사회에 불어닥친 인도적 차원에서의 아편 금지 캠페인의 영향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차이는 두 상품의 특징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의 성격이 공산화 이후 급작스레 변화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이 아편 소비지역보다는 근대화와 경제회복에 주력하는 시장으로 바뀌면서 밀거래하는 상품의 비중 역시 아편에서 공산품 및 천연자원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은 역내와 역외의 경계지역, 도심지, 농촌 지역 등 모든 곳에서 농업, 상업, 산업에 종사한 핵심 인력이었다. 그 가운데 화상들은 동남아시아 근대 도시에서의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자 남중국해를 건너는 중국-동남아 무역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담당한 이들이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은 냉전초 제국적 질서에서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둘 모두에 걸쳐 있는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의 해체가 오히려 화교들에게는 밀무역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그 루트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호찌민과 같은 사회주의 기반 민족주의자들의 국가 구상 속에서 베트남인들은 아편 흡연에서 제외되고, 중국인들은 허가받은 것은 ‘헤비 스모커’였던 그들로부터 세금수입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롭게 탄생한 국민국가적 질서 속에서 경계인으로서 중국계 이주민들은 어디에서도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어느 국가의 구성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밀무역이라고 하는 초국적 활동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는 냉전초라는 혼란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화상들이 누구나 탐낼만한 그들만의 독보적인 초국적 네트워크 영역을 확립해 놓고 있었기 때문

이기도 하다. 2차 대전 이후부터 1950년대 초중반까지 냉전 초기의 동남아시아는 기존 서구 제국의 식민지적 질서가 붕괴하고, 국민국가에 기반 한 독립국가들의 경계가 설정되어 가던 과도기적 공간이었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화상들은 밀무역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다.

참고문헌

- 강희정. 2019. 『아편과 강통의 궁전』. 푸른역사.
- 김종호. 2018.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과 동아시아 전시체제-동남아 화상(華商)기업의 전시(戰時) 위기대응과 생존.” 『史叢(사총)』 93:1-47.
- 김종호. 2020. “친공(親共)과 애국 사이-CIA 문서를 통해 본 냉전초 동남아 화교화인의 대중(對中)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85집:193-227.
- 여운경. 2014a. “1950년대 인도네시아 지역반란과 화인사회 - 국민당계의 몰락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1(1):45-69.
- 여운경. 2014b. “1950-60년대 인도네시아 정치적 혼란과 셀레베스해 밀무역.” 『문화역사지리』 26권 1호:108-120.
- Ang Cheng Guan. 2018. *Southeast Asia's Cold War - An Interpretive History*.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erks, Hans. 2012. *History of the Opium Problem - The Assault on the East, ca. 1600-1950*. Brill.
- Eilenberg, Michael. 2012. “Intersecting Spheres of Legality and Illegality.” *At the edges of States - Dynamics of State Formation in the Indonesian Borderlands*, Brill. 205-234.
- Harumi Goto-Shibata. 2006. “Empire on the Cheap: The Control of Opium Smoking in the Straits Settlements, 1925-1939.” *Modern Asian Studies* 40(1):59-80.
- Huang Jianli. 2006. “Entanglement of Business and Politics in the Chinese Diaspora: Interrogating the Wartime Patriotism of Aw Boon Haw.” *Journal of Chinese Overseas* 2(1):79-110.
- Jones, Eric A. 2007. “Fugitives Women: Slavery and Social change

- in early modern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8(2):215-245.
- Kinzley, Judd. 2022. “Wartime Dollars and the Crowning of China's Hog Bristle King: The Dubious Legacies of American Aid, 1938-1949.”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7(1):31-61.
- Kim, Diana S. 2018. “A Surreptitious Introduction: Opium Smuggling and Colonial State Formation in Late 19th Century Bengal and Burma.” R. Freedona & S. Reinhert (Eds.), *The Legitimacy of Power: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33-252.
- Kim, Diana S. 2020. *Empires of Vice - The Rise of Opium Prohibition across Southeast As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JongHo. 2018. “Between Cooperation and Survival: Overseas Chinese remittance business in Chaosh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39-1945).” *Social Transformation in Chinese Societies* 14(2):79-96.
- Markovits, C. 2009. “The Political Economy of Opium Smuggling in Early Nineteenth Century India: Leakage or Resistance?” *Modern Asian Studies* 43:89-111.
- Phan Hong Tung. 2012. “The Cold War and Vietnam 1945-54: How did a nationalist struggle turn into a class struggle?” Albert Lau ed. *Southeast Asia and the Cold War*. Routledge. 153-173.
- Reid, Anthony. 1993. *South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era: Trade, power, belief*. Cornell University Press.
- Tagliacozzo, Eric. 2002. “Smuggling in Southeast Asia: History and

- its Contemporary Vectors in an Unbounded Region.” *Critical Asian Studies* 34(2):193-220
- Tagliacozzo, Eric. 2005. *Secret Trade, Porous Borders - Smuggling and States Along a Southeast Asian Frontier, 1865-1915*. Yale University Press.
- Tagliacozzo, Eric. 2022. *In Asian Waters: Oceanic Worlds from Yemen to Yokoham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rling, Nicholas ed.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 2 - From c.1500 to c.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ai, Philip. 2016. “Law, Sovereignty, and the War on Smuggling in Coastal China, 1928, 1937.” *Law and History Review* 34(1):75-114.
- Trocki, Carl, A. 2009. “Chinese Revenue Farms and Borders in Southeast Asia.” *Modern Asian Studies* 43(1):335-362.
- Trocki, Carl A. 2011. “Opium as a Commodity in the Chinese Nanyang Trade.” *Chinese Circulation - Capital, Commodities, and Networks in Southeast Asia*-. Eric Tagliacozzo eds. Duke University Press. 84-104.
- Trocki, Carl. 2002. “Opium and the Beginning of Chinese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3(2).
- Wright, Ashley. 2008. “Opium in British Burma, 1826-1881.” *Contemporary Drug Problems* 35:297-314.
- Yong Mun Cheong. 2003. *The Indonesian Revolution and The Singapore Connection 1945-1949*. Leiden: KITLV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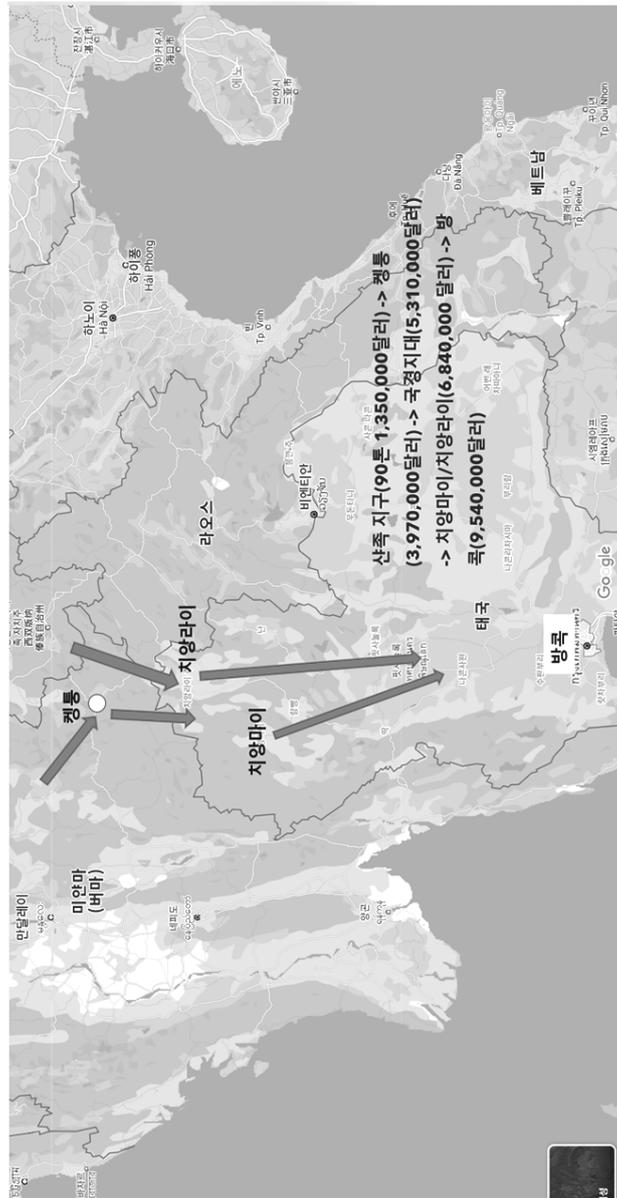
1차 사료

CIA-RDP82-00457R002100350002-2. 13 Dec 1948. “Illicit Opium

- traffic Southeast Asia(Indochina/Siam/Malaya).” CIA Archives.
CIA-RDP80-00809A000700210213-7. 5 Dec 1952. “Singapore Stops
China-Destined Machine Parts: Thailand Bans Imports of
Parts From Border countries.” CIA Archives.
CIA-RDP82-00457R001900840008-5. 19 Oct 1948. “Smuggling.”
CIA Archives.
CIA-RDP82-00457R002600460007-0. 29 Apr 1949. CIA Archives.
(제목없음)
CIA-RDP82-00457R008300690008-1. August 1951. CIA Archives.
(제목없음)
CIA-RDP82-00457R006000040002-3. 11 Oct 1950. “Construction of
Rubber Mills in Canton by Tan Kah Kee.” CIA Archives.
CIA-RDP79T00935A000400150001-4. 9 Nov 1956. “Intelligence
Memorandum - An Examination of the Charges of Chinese
Communist Involvement in the Illicit Opium Trade.” CIA
Archives.

(2022.10.09. 투고, 2022.10.16. 심사, 2022.11.22. 게재확정)

<부록 1> 1955년 버마-태국 아편 밀무역 유통 지도



출처: 구글지도를 바탕으로 미국 중앙정보국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Abstract>

Structure of Smuggling in Southeast Asia and
Role of Overseas Chinese Merchants during the
Early Cold War: Focus On Opium,
Manufacturing Products, Natural Resources

JongHo Kim
(Sogang University)

Southeast Asia in the 1950s wa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Empire with trans-regional colonial territories to nation state with exclusive border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various types of Southeast Asians began to struggle for survival or interests. This paper focuses the involvement of the overseas Chinese merchant groups in the illicit trade, one of the survival strategies for Southeast Asians. In particular, their smuggling that exported opium, electronic products, and natural resources(rubber and petroleum) would be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the early Cold War.

The scattered document evidences on overseas Chinese smuggling collected by CIA reports at the time are the most important primary sources for this article. According to CIA sources, overseas Chinese merchants controlled the extensive and large circulation of opium in the Indochina Peninsula's Bangkok and Saigon-centered markets, as well as the Singapore-centered international market in maritime Southeast Asia.

Meanwhile, with the rise of the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ain source of smuggling from Southeast Asia to China (and even further to the Soviet Union) shifted from opium to manufactured goods and natural resources for economic development within a competitive framework with the US. Overseas Chinese merchants also played a role in this illegal trade around the South China Sea.

For hundreds of years, the overseas Chinese have been a significant component of Southeast Asia's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agricultural,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s. Overseas Chinese merchants led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s rural areas, as well as international trade around the South China Sea. As a diaspora group, they found themselves at the historical moment of transition from empires and nation states during the early Cold War. Ironically, the disintegration of empires in Southeast Asia provided overseas Chinese merchants with an opportunity to control illicit trade channels throughout the 1950s and 1960s transition period. It was possible because they had constructed their own exclusive network transcending national and regional boundaries.

Key Words: Cold War, overseas Chinese merchant, smuggling in Southeast Asia, illicit trade in South China Sea